

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10 월 October)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
2nd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7- 빌립보서 Philippians 4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
3rd	골로새서 Colossians 1- 빌레몬서 Philemon	주기도문의 끝 말씀
4th	히브리서 Hebrews 1-야고보서 James 5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요일 ()시에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day at () o'clock in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st Week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바울서신 1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각 서신은 당시 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를 배경으로 하지만, 바울의 모든 답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분열, 성적 타락, 우상숭배, 예배의 무질서, 부활 논쟁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무역과 상업으로 번성한 고린도는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함이 만연했으며,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자부심이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1-6 장을 읽습니다. 리딩지저스 영상은 바울서신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Paul's Epistles 1

Paul's epistles are letters the apostle Paul sent to churches and individuals. Each letter is set against various problems the churches of that time were facing, but at the center of every one of Paul's answers is always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 Corinthians was written to address problems reported from the Corinthian church—division, sexual immorality, idolatry, disorder in worship, and disputes over the resurrection. Corinth, which flourished through trade and commerce, was rife with idolatry and sexual immorality, and a pride in philosophy and rhetoric ran deep in the citizens' way of thinking and way of life. In response, Paul declares that the gospel of the cross alone is the wisdom and power of God, and urges the believers of the Corinthian church to keep their holy identity and live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Even so, some in the Corinthian church doubted Paul's apostleship and were led astray by false apostles who boasted of outward displays of power. So in 2 Corinthians, Paul defends his ministry and speaks of the power and comfort of Christ that are revealed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weakness.

This week we read 1 Corinthians and 2 Corinthians 1–6. The Reading Jesus video guides us to focus on the meaning and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that Paul's epistles teach. May this be a week overflowing with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found in God's power and comfor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고린도전서 2:2).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2.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로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위로나 소망은 무엇인가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3.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기 모습을 보며 쉽게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질그릇 같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두신 이유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린도후서 4:7).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표적에만 매료되어 정작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삶 속에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표적 그 자체만을 쫓고 있나요?

1. Paul confesses that he "resolved to know nothing...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inthians 2:2). Why do you think Paul made this confession? Where is the center of my faith right now?
2. When I believe the truth that the risen Jesus, as the "firstfruits" (1 Corinthians 15:20), guarantees the resurrection of believers, what comfort or hope speaks most powerfully to me? How is that hope—one that reaches beyond death—changing my life today?
3. Some people, seeing themselves as mere jars of clay, easily grow discouraged, while others, not even realizing that their life is like a jar of clay, become proud. But the reason God placed Jesus, the treasure, within us, who are like jars of clay, is so that we would know the power belongs not to us but to God (2 Corinthians 4:7). How can I apply this word to my life? The signs recorded in the Gospel of John exist to reveal who Jesus is, so that people would believe in Him and follow Him. Yet many are captivated by the signs themselves and never move forward to actually believing in Jesus. In my own life, am I looking through the signs to see Jesus—or am I chasing the signs themselves?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2nd Week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7-빌립보서 Philippians 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바울서신 2

대부분의 바울서신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구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반부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은혜의 절대성을 선포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복음의 은혜,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후반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연합, 거룩한 삶,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룹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이나 그 안에서도 복음의 은혜와 성도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7-13 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리딩지저스 영상에서는 바울서신의 이중 구조와 에베소서의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Paul's Epistles 2

Most of Paul's letters share a common pattern. First, they proclaim the grace of salvation that God accomplishe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n they exhort the believers who have received that grace on how they should live.

Galatians proclaims, in its first half, freedom from the law and the absoluteness of grace, and emphasizes, in its second half, that this freedom must not become self-indulgence but should show itself in love and service within the Spirit. Ephesians declares, in its first half, God's election and redemption, the grace of the gospel, and the identity of believers, and deals, in its second half, with the unity of believers within the church, a holy life, and their roles in the home and society. Philippians, though a short letter, closely connects the grace of the gospel with the believer's life even within its brevity, emphasizing living a life worthy of the gospel.

This week we read 2 Corinthians 7–13, Galatians, Ephesians, and Philippians. The Reading Jesus video focuses a bit more on the twofold structure of Paul's letters and the message of Ephesians. May this be a time of deeply reflecting on the grace of God who saved us by grace, and of resolving to live a life of obedience to His word within that grace.

적용 Application

1.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행위나 성취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나요? 나는 은혜와 행위 중에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2.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뒤, 우리가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어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면, 내 삶과 신앙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나요?

3.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한 몸으로 함께 자라 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은 무엇인가요?

1. Paul declares that we are made righteous by faith in Christ, not by the law. Am I still trying to stand before God through my own works or achievements? Which do I truly rely on—grace or works?
2. God first saves us in Christ and makes us His children, and only then does He desire that we live in a way fitting to that identity. If this order were reversed—if we had to live righteously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God's children—how would my life and faith be different from now? How does it strike me as grace that God made us His children first?

3. God has caused saved believers to form the church and grow together as one body. What am I currently doing to labor for the gospel within the community I belong to? In what ways am I serving this community together with others?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3rd Week 골로새서 Colossians 1-빌레몬서 Philemon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바울서신 3

바울서신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을 머리와 몸, 건물과 모퉁잇돌, '그리스도로 옷 입다', 신랑과 신부 같은 다양한 은유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합의 기초 위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종말의 관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나, 우리는 '아직' 죄악과 불의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주어진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골로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과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데살로니전후서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덕목과 경건의 삶을 가르치고,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가져오는 화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들이 당시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소망을 되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Paul's Epistles 3

One expression that appears repeatedly throughout Paul's letters is "in Christ." This phrase reveals the believer's identity, pointing to the fact that believers are united with Jesus. Paul describes this union through various metaphors—head and body, building and cornerstone, "clothed with Christ," and bridegroom and bride.

On the foundation of this union, Paul teaches an eschatological perspective of "already, but not yet."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a new age has "already" begun, but it has "not yet" fully arrived. Christ has "already" conquered sin and death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but we are "not yet" free from struggling against sin and injustice in our daily lives. Believers enjoy the resurrection life "already" given to them, while living in hope of a glory "not yet" fully realized.

This week we read from Colossians through Philemon. Colossians proclaims Jesus' absolute supremacy and His headship over the church, while 1 and 2 Thessalonians encourage believers to hold firmly to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nd the second coming. 1 and 2 Timothy and Titus teach the virtues needed to raise up church workers and a life of godliness, and Philemon, through the story of Onesimus, shows the reconciling power that the gospel brings.

May this be a week in which we remember that these letters are God's word given not only to the church of that time but also to the church and to each of us today, and in which we reflect anew on the identity and hope given to us in Chris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존재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골로새서 2:12-13).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믿어 왔나요? 예수님과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2.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져다주나요?
3.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과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 Paul says that we are united with Christ "in Him," having died and been raised with Him (Colossians 2:12–13). What kind of person have I understood and believed Jesus to be up to now? Do I truly believe, from the heart, that Jesus and I are united in a way that can never be separated?
2. To believers facing affliction, Paul says that their present suffering is only for a moment, and that when the Lord returns, God's righteous judgment will come. What hope does this truth bring to the suffering I am going through right now?
3. Paul urges Timothy not to follow money and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but to pursue a godly life. This week, what do I need to lay down for the sake of a godly life? Among the things I'm currently holding onto, is there anything I'm relying on more than God? Paul deeply experiences God's presence in the process of preaching the gospel. Have I ever felt God's presence and help while sharing the gospel of Jesus? How did that experience shape my faith and my life?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4th Week 히브리서 Hebrews 1-야고보서 James 5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일반서신 1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서신들도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일반서신'이라 불리며, 특정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더 넓은 성도 공동체를 향해 쓰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디모데를 알고 있었고(13:23),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2:3).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과 구약성경의 풍부한 인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서신의 수신자는 유대인 성도들과 유대교 배경을 지닌 이방 성도들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구약성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이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리딩지저스 영상은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에 더욱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이 일상의 행실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General Epistles 1

The New Testament also includes letters not written by Paul. These are called the "General Epistles,"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they were written not to a specific individual or church, but to the broader community of believers.

The author of Hebrews is not clearly known, but he knew Timothy (13:23) and was not someone who had directly witnessed Jesus (2:3). Given the title "To the Hebrews" and the letter's rich use of Old Testament quotations, its recipients appear to have been Jewish believers and Gentile believers with a Jewish background. Hebrews proclaims that Jesus is greater than the angels, greater than Moses, and greater than the priests of the line of Aaron, and that He is the eternal high priest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Through the single sacrifice of offering Himself, Jesus accomplished eternal redemption and brought the sacrifices of the Old Testament to completion. The author therefore urges believers not to turn back to the law, but to hold firmly to their faith even amid trials.

James was written by James, the brother of Jesus and a leader of the Jerusalem church, and was sent to Jewish believers scattered abroad. He emphasizes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This does not mean that salvation comes from works, but rather that genuine faith must inevitably show itself in the fruit of a changed life.

This week we read Hebrews and James. The Reading Jesus video focuses more closely on the central message of Hebrews. May this be a week in which we build our faith

firmly on Jesus' perfect work of salvation, and in which that faith bears fruit in our everyday conduc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히브리서 2:18). 나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2.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히브리서 7:25; 8:1-2). 나는 예수님의 이 '현재진행형' 사역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3.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야고보서 말씀 중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Jesus, knowing our weaknesses, is the high priest who helps those who are being tested (Hebrews 2:18). When I face difficulties or trials, do I tend to go straight to Jesus—or do I tend to try to solve the problem on my own?
2. Jesus is alive even now,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interceding for believers as our high priest (Hebrews 7:25; 8:1–2). How much am I truly trusting in and relying on this "ongoing, present-tense" ministry of Jesus as I live my life?
3. James urges us not merely to hear the word, but to put into action what we have heard. What is one specific thing from James that I can put into action in my life right now? How can I practice that word today?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